

2022.02.22

吉和小学校の皆様へ

廿日市市吉和診療所 吉川 仁（きっかわ まさし）

皆様こんにちは。

廿日市市では、3月から、5才から11才の皆様が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ワクチンを打てるようになります。吉和診療所でも、注射の準備をしています。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中でも、「オミクロン株」というウイルスが、今流行っています。ワクチンを打つと、皆様にとって、どんな良いこと、悪いことがあるのでしょうか。

良いことは、ワクチンを打つと、オミクロン株にかかって熱などが出る人が、たぶん半分くらいに減ることです。そして、もしオミクロン株にかかっても、病気が重くなりにくくなります。ただ、ワクチンの効きは、少しずつ減ります。半年たつと、打っていない人と同じくらいかかりやすくなってしまいます。

悪いことは、ワクチンを打つと、次の日、熱が出たり、体がだるくなったりするかもしれないことです。「副作用」といいます。副作用は、大人とあまり変わらないようです。ワクチンを打った次の日、学校や保育園に行くのがつらくなる人がいるかもしれません。

大人や高齢者は、副作用は心配だけれど、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かかっても熱などが出にくく、重くなりにくくなるのはありがたいので、良いこと、悪いことを比べて、なやんで、それぞれが注射するかしないかを決めました。

さて、アメリカやイスラエルという国では、日本より早く、去年の11月から、5才から11才の子供ならだれでもワクチンを打てるようになりました。打った人も、打たなかった人もいます。

それでは問題です。吉和小学校（児童36名）の皆様が、もしアメリカやイスラエルに住んでいたとしたら、11月から2月までに、どのくらいの方がワクチンを打ったことになるのでしょうか？

- ① 7人
- ② 18人
- ③ 32人

正解は、① 7人がワクチンを打ったことになります。

そして、吉和小学校の皆様が、もし子供ではなくて、全員日本の高齢者だったとしたら、
③ 32人がワクチンを打ったことになります。

子供と高齢者では、どうしてこんなにワクチンを打った人数がちがうのでしょうか。
実は、5才から11才の皆様は、ワクチンを打たなくても、大人や高齢者より、もともと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強いことがわかっているのです。かかっても、重くなることはほとんどありません。半分くらいの人は、軽すぎて気付かないうちに治ってしまうようです。それならば、副作用は心配だし、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かかっても重くならないのなら、注射をやめておこうと考える人が、アメリカでもイスラエルでも多いのだらうと思います。

なお、アメリカやイスラエルは、5才から11才の子供にワクチンを打ったらどうだったか、良いことも、悪いことも、世界中に伝え続けています。おかげで、日本も、他の国々も、どうするのが一番よいか考えることができます。

WHOという、世界中の人々の健康を考える人たちの集まりは、「病気を持つ子供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かかると重くなるかもしれないので、ワクチンを打てるようにしましょう」と言っています。

ドイツでは、病気を持つ子供にはワクチンをすすめています、病気がない子供は、打ちたければ打ってもいい、と言っています。

スウェーデンでは、病気がない子供にはワクチンを打たない、と言っています。

イギリスは、はじめスウェーデンと同じでしたが、途中で考えを変えて、アメリカと同じにしました。

韓国では、まだ5才から11才の子供にワクチンを打ち始めていません。

このように、5才から11才の子供へのワクチンについては、国によって実にさまざまです。皆様も、この手紙を読みながら、注射するかしないか、なやんでいるかもしれません。

まず、皆様が病気を持っていないかどうか、とても大切です。

そして、家族が病気を持っていないか、高齢者の家族がいないかなど、いろいろ考えて、家族で話し合っ決めて決めることになります。

他の友達が打つから、打たないからでなく、家族によってさまざまな答えがあると思います。

最後に、ワクチンは病気にかけにくくしてくれますが、完全ではありません。

注射しても、しなくても、マスクなど、学校で学んできた感染予防を、どうか続けてください。

요시와 초등학교 여러분께

하츠카이치시 요시와 진료소 깃카와 마사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츠카이치시에서는 3 월부터 5 세에서 11 세까지의 여러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요시와 진료소에서도 주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오미크론 '이라는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어떤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을까요?

좋은 일은 백신을 맞으면 오미크론에 걸려서 열 등이 나오는 사람이 아마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미크론에 걸려도 병이 중하지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백신 효과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반년이 지나면 주사하지 않은 사람만큼 약해집니다.

나쁜 일은 백신을 맞으면 다음 날에 열이 나거나 몸이 나른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부작용은 어른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맞은 다음날에 학교나 보육원에 가는 것이 힘들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른이나 고령자는 부작용은 걱정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열 등이 나기 어렵고 병이 중하지기 어려워질 것이 고맙기 때문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비교해, 고민해, 각각 주사하는지 만지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일본보다 일찍 작년 11 월부터 5 세에서 11 세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백신을 맞게 되었습니다. 맞은 사람도 맞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문제입니다. 요시와 초등학교(아동 36 명) 여러분이 만약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면 11 월부터 2 월까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을 것 같을까요?

- ① 7 명
- ② 18 명
- ③ 32 명

정답은 ① 7 명이 백신을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시와 초등학교 여러분이 만약 어린이가 아니라 모두 일본의 고령자였다면

③ 32 명이 백신을 맞았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와 고령자는 왜 이렇게 백신을 맞은 사람수가 다를까요?

실은 5 세에서 11 세 여러분은 백신을 맞지 않아도 어른이나 고령자보다 원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강한 것이 판명되어 있습니다. 걸려도 병이 중하게 되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절반 정도 사람은 너무 가볍고 병을 깨닫지 못하고 낫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작용은 걱정이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병이 중하게 되지 않는다면 주사를 그만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5 세에서 11 세 어린이에게 백신을 맞아서 어땠을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전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일본도 다른 나라도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WHO 라는 전세계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병을 가지는 어린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병이 중하게 될 수 있어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세요“ 라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병을 가지는 어린이에는 백신을 권하지만 병이 없는 어린이에는 “맞고 싶으면 맞아도 되다“ 라고 합니다.

스웨덴에서는 “병이 없는 어린이에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 라고 합니다.

영국은 처음은 스웨덴과 같았지만 도중에 미국과 같은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5 세에서 11 세 어린이에게 백신을 맞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5 세에서 11 세 백신에 대해서는, 나라에 따라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분도 이 편지를 읽으면서 주사할지 어떨지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여러분이 병을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병을 가지고 있는지, 고령자 가족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 생각해서 가족으로 잘 이야기를 해서 결정하세요.

학교 친구들과 관계 없이 가족에 따라 다양한 대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은 병에 걸리기 어렵게 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사해도 않아도 마스크 등 학교에서 배운 감염 예방을 부디 계속하십시오.